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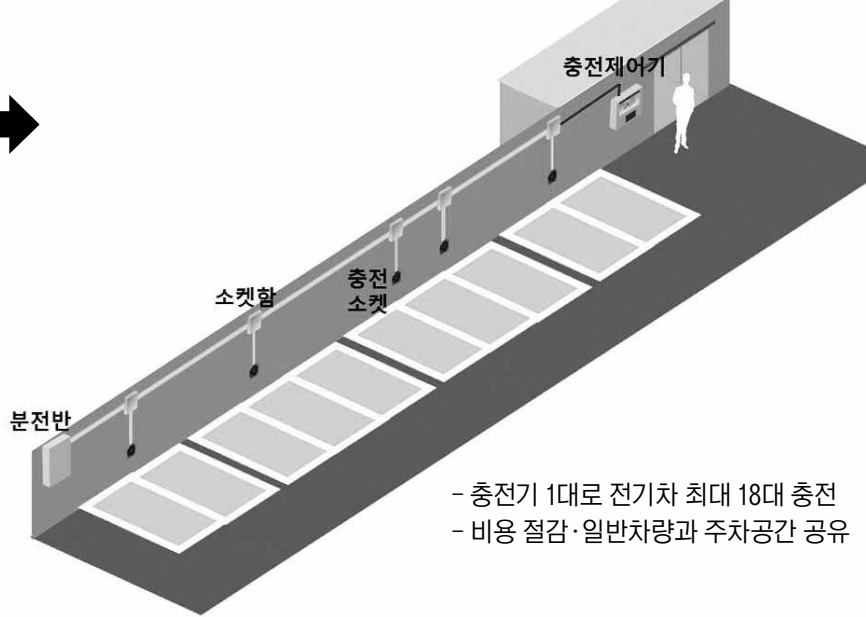
충전기 1대로 전기차 18대 동시 충전 기술 개발

한전, 충방전 시스템 보급 전용 주차구역 확보 단점 해결 충전기 보급 확대 획기적 기여



기존 방식

■한전 전기차 동시 충방전 시스템



- 충전기 1대로 전기차 최대 18대 충전
- 비용 절감·일반차량과 주차공간 공유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일 “1대의 충전기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하고, 전기차에 충전된 전기를 기존 전력망에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충방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이번에 개발한 전기차 동시 충방전 시스템은 1대의 충전기에 여러 개의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 매 주차공간마다 각각 소켓을 설치하여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1대의 충전기에 1대의 전기차만 충전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필요한 기존 충전기의 단점을 해결하고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고가의 충전기 수를 줄임으로써 주차장 충전시설 구축 비용을 절감해 향후 충전기 보급 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기차와 충방전 시스템에 탑재된 통신기능을 통해 전력을 양방향으로 전송하는 기술인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망에서 전력이 부족할 경우

전기를 다시 역송해 전력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전이 개발한 한국형 V2G 기술이 국내 스마트그리드 협회의 기술 표준으로 제정됐고, 국제표준 규격(IEC 15118)에도 제안되어 채택될 경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전기차 동시 충방전 시스템을 대전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 내에 설치 완료하고 향후 6개월간의 시스템 실증을 거쳐 성능을 검증하여 향후 전기차 이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나 공유주차장, 대형 쇼핑몰 등의 주차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전력연구원 주차장에 동시 충방전 시스템 1대와 소켓 18개를 설치해 일반 차량과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주차장내 어느 곳에 주차하더라도 근처의 충전 소켓에 꼽아서 동시에 18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에 개발한 전기차 충방전 시스템과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시장 수요반응, 건물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출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글로벌 표준 기

반의 전기차 충전기용 OS도 개발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충전기에 탑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 가능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카셰어링 서비스에 이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T 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 18% 감소

위생관리 민간창고까지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2일 “그동안 수급안정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 활동 등을 시행해 온 결과, 2016년도 비축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고객만족도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aT는 정부차원의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 강화되는데 발맞추고 농산물의 보관 환경 및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축물자 위생·안전관리 강화와 고객만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콩나물 콩 보관방법 지도 등 소비자 안내 활동 확대, 품질검사 기준 재설정, 정부기관 협업체제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

시하는 한편, 비축물자 품질개선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비축기지 위주의 위생관리를 민간창고까지 확대했다. 또 입찰업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제·개정되는 검역조건 사항을 입찰요서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6년 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업제 수 기준)가 144건으로 전년(175건) 대비 18%(31건) 감소했고, 불만제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95.3점으로 목표치(95.0점)를 상회하는 부가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aT 김동열 수급이사는 “aT는 향후에도 과학적 분석과 소비자 관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비축농산물 =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인식 확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aT 이전물류창고 하역현장.

(aT 제공)

정의현 한전KPS 사장 선임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주) 제13대 사장으로 정의현(62) 한전 KPS 경영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한전KPS는 최근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 소재)에 위치한 본사에서 열린 2017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을 뽑았다.

한전KPS 정의현 신임 사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하였으며, 1985년 한전 KPS에 입사해 기획처장, 재무처장, 감사실장,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윤용 aT 광주전남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광주 전남지역본부 신임 본부장에 이윤용(54)씨를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 당진 출신인 이윤용 본부장은 1986년 공사에 입사한 후, 총무시설부장, 비서실장, 재무관리처장 등을 두루 거치며, 뛰어난 기획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으로 복리증진, 정부 정책자금운용, 가격 안정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관리비축부장에는 노윤희 부장, 수출유통부장에는 문병필 부장이 부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보통신기술사 시험

내일 올해 첫 실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이하 KCA)은 4일 ‘2017년도 제1회 정보통신기술사 필기 시험’을 실시한다.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은 정보통신분야(무선·유선·융복합)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기술인력을 선발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KCA는 지난 2012년부터 정보통신기술사 검정업무를 시행해왔으며 지난 5년간 총 110명의 정보통신기술사를 배출했다.

한수용 KCA 기술자격본부장은 “향후 배출될 기술사들은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ICT 산업과 기술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격검정은 서울, 경기(수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자격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SRT 개통 후 나주역 정차 1일 47회로 확대

혁신도시 접근성 향상

수서발고속철(SRT)열차가 지난 12월 9일 운행에 들어가면서 나주역 정차횟수가 대폭 늘었다.

2일 나주시와 나주역 등에 따르면 SRT 개통으로 나주역 정차는 기존 KTX 29회(상행 14회, 하행 15회)에서, SRT 18회(상행 9회, 하행 9회)가 증편되면서 최대 47회

로 늘어나게 됐다.

수서발SRT 개통으로 상행은 13회에서 23회로 하행은 13회에서 24회로 늘어나면서 1시간에 1대꼴로 열차가 운행돼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고, 10%정도 저렴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객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SRT 개통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연관 기업들을 비

롯한 나주역 이용객들의 고속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나주에서 수도권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수도권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에 대비해 관광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나주역에 270면의 주차장을 마련하여 무료 개방하고 있으나 열차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나주역 주변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송영철기자 ycsn@

콘텐츠 이용 피해 ‘서비스 하자·중단’ 최다

(31.5%)

콘텐츠진흥원 조사

콘텐츠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 30.8%가 각종 피해를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르별로 ▲게임(28.7%) ▲영화(21.2%) ▲음악(20.0%) 관련 콘텐츠 피해자가 많았고, 피해 유형은 ▲콘텐츠·서비스의 하자, 제공 중단(31.5%)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요금 청구에 의한 피해(19.

4%)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17.2%)가 뒤를 이었다.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 중 59.1%는 이후 콘텐츠 이용 빈도를 줄였다고 답했다. 또 피해 경험 이용자 중 52.5%는 해당 업체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처리결과에 ‘만족한다’고 한 응답자는 16.0%(매우 만족 1.5%, 만족 14.4%)였다.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 외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14.2%의 이용자가 해당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전문기관을 통한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31.0%(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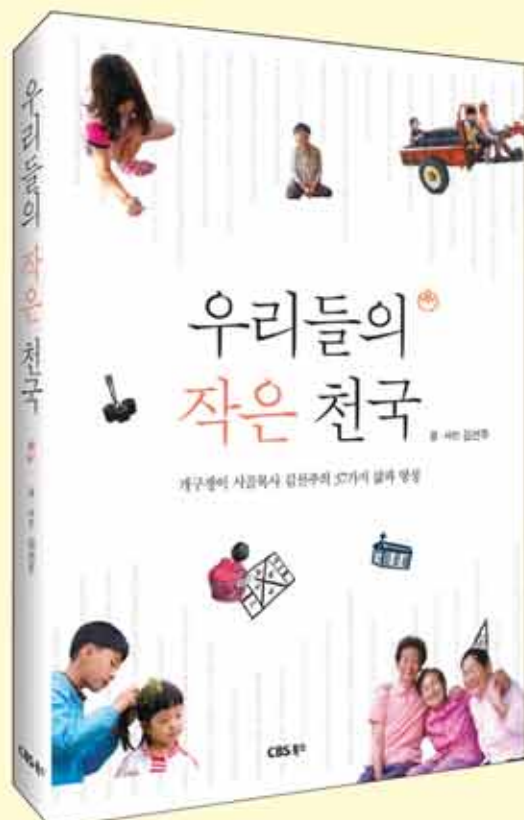
만족 4.2%, 만족 26.8%)였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이용자 2명 중 1명(48.3%)은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에서 ‘콘텐츠 이용 시 총동 결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콘텐츠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5.3%였으나 휴대폰·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는 68.9%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PC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콘텐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시골목사 김선주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제안!

세속에 물든 사람들, 타락한 도시, 위기의 교회를 향해 띄우는 37가지 주옥같은 삶과 영성의 메시지



‘한국교회의 일곱 가지 죄악’을 펴낸 뒤 스스로 찾아간 두메산골 교회 8년의 세월 동안 기도와 침묵 가운데 써내려간 위로와 치유의 이야기

지난 봄 손녀딸이 열 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어 준 게 아직도 색이 바래지 않고 곱게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 이거 영감님 포실라고 이렇게 이쁘게 물들인 거 아니냐?”

찾는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안 빠지면 찻사랑이 이루어진다는다……”

승합차에 타고 있는 교인들이 갑자기 배꼽을 쏟아내며 들쭉거립니다. _ 본문 25쪽에서

우리들의 작은 천국

4·6변형판 | 272쪽 | 글·사진 김선주 | 값 13,000원 CBS 북스

